

개관 6개월 광주시립미술관 북경 창작센터

광주미술 해외진출 돕는 창구됐다

오픈스튜디오전에 中 미술계 거목들 대거 참가

해외 유명 갤러리 등서 입주작가들 잇단 러브콜

광주시립미술관(관장 박지택)이 지난해 12월 중국 북경에 문을 연 창작센터가 개소 6개월 만에 지역 작가의 세계 진출을 돕는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창작센터 입주 작가들이 독일 유명 갤러리 관장인 마이클 슈츠와 현지 경제회사로부터 잇따라 러브콜을 받는 등의 성과도 거두고 있다. 지자체가 지역작가들의 창작지원을 위해 외국에 스튜디오를 낸 것은 광주 시가 처음이다.

광주시립미술관은 13일 "북경창작센터 정식 개관식과 입주작가 오픈스튜디오전을 지난 10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베이징 파산쯔 환타에(環鐵) 창작 예술지구에서 지난해 문을 연 창작센터는 입주작가들의 현지 적응과 시설 보완 등을 위해 개관식을 늦췄고, 입주작가들의 그동안 성과를 공개하는 오픈 스튜디오전을 이날 함께 열었다.

개관식과 오픈스튜디오전에는 박광태 광주시장, 강박원 광주시회의

장, 김익겸 주중한국문화원장과 황영성·최영훈·나상욱씨 등 국내 대표 작가들이 참여했다.

또 우창지양 중국미술 부주임, 한피안 중국미술관장, 양샤오양 국가화원장, 왕밍핑 북경화원장, 티엔리밍 중국예술연구원 부원장, 리양 중앙미술대학, 추이세량북경여대대학 총장 등 중국 미술계 거목들이 대거 방문했다.

제1기 입주작가인 김해성(48)·전현숙(46)·조강현(45)·김진화(40)·김일근(39)씨도 눈부신 성과를 내고 있다. 독일의 3대 갤러리도 손꼽히는 마이클슈츠 갤러리의 초대로 '아트베이징'(4월29일~5월2일)에 참여해 작품을 선보였다.

뉴욕과 더불어 현대 미술의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베이징의 '베이징 뉴차이나 국제전시센터'에서 열린 이번 아트베이징에는 17개국 97개 화랑이 참여했고, 이들 작가들은 컬렉터들에게 자신의 작품을 알렸다.

또 중국 현지 기업체가 김일근씨의 작품이미지 저작권을 구입할 의사를



지난 10일 중국 베이징 광주시립미술관 창작센터에서 열린 오픈스튜디오전에서 중국 미술 관계자들이 광주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광주시립미술관 제공)

밝히는 등 성과도 일궈냈다.

이처럼 광주지역 작가들이 주목받게 된 것은 창작센터의 역할이 크다. 창작센터는 베이징의 미술 중심지인 파산쯔 환타에 창작예술지구에 위치해 있어 미술 전문가와 컬렉터들에게 작품이 노출되는 기회를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수준높은 작가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중국의 저명한 기회자나 평론가, 화랑관계자와 함께 워크숍과 세미나를 열어 중국 화단에 광주 작가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었다. 박지택 관장은 "환타에 창작예술 지구는 각국에서 몰려든 작가들이 새로운 현대미술을 창조하는 곳"이라며 "창작센터를 광주 작가들이 현대 미술의 중심에서 마음껏 작업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기 북경 창작 센터 입주작가는 박수만(서양화)·기영숙(한국화)·김광철(서양화)·최요안(서양화)·김영태(사진)씨가 뽑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지역 중견작가들의 사계절 풍광

예술향아리전...상계갤러리 19일까지

상계갤러리 기획 초대전 '예술향아리전'이 오는 19일까지 광주 예술의 거리 상계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는 지역의 중견 작가 11명이 참여, 사계절 다양한 풍광과 정물을 담은 그림을 선보인다.

한희원씨는 푸른 빛에 잠긴 도시 풍경을 유화로 표현한 'K 도시의 겨울'을 선보이며 전병문씨는 호수와 산, 갈대가 어우러진 '겨울 여행'을 수채화로 그렸다. 또 시인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김중씨는 하늘을 나는 새를 표현한 '조춘(부춘)', 정홍기씨와 문병호씨는 화사한 5월의 장미를 선보인다.

그밖에 김영환·맹병호·김소남·김재일·김진석·백현숙



문병호 작 '봄기'

씨가 출품했다. 문의 062-233-9488.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캔버스에 스치는 봄바람

나인갤러리 22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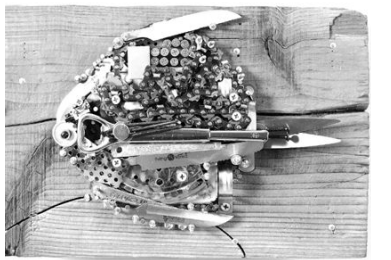
나인갤러리는 13~22일 20~40대 젊은 작가들의 신작을 선보이는 '봄바람'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고근호·신양호·정운화·이민하·김숙빈·이호국·이선희·이경미·홍원철·최고봉씨가 참여

해 톡톡 튀는 감각이 살아 있는 작품을 선사한다.

고근호씨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스타 마이클 잭슨과 마릴린 먼로, 체 게바라, 어린왕자 등의 모습을 유쾌하고 즐겁게 표현한 조각을 선보인다.

또 신양호씨는 못, 고철 등을 이용해 병치, 갈치 등의 물고기를 표현한



신양호 작 '덕지'

연작을 선보인다. 문의 062-232-2328.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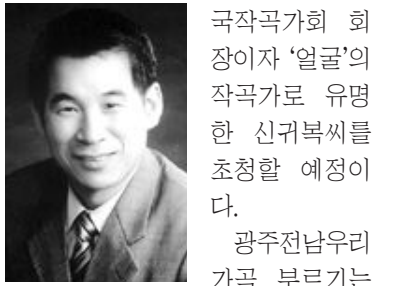
5월에 부르는 우리 창작가곡

내일 호신대 티 브라운 카페

제20회 광주전남 우리가곡부르기(회장 황선숙)가 14일 오후 7시30분 호남신학대학교 티 브라운 카페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에서는 작곡가 김남삼(목포 유달중 교장·사진)씨의 창작 가곡 '첫사랑 꿈꾼 날', '그대 그리운 날' 등을 테너 양인승과 소프라노 한효정씨가 선사한다.

또 리틀 스텔피아 중창단은 각종 창작동요발표회에서 대상을 3회 이상 수상하는 등 동요 작곡가로도 알려진 김씨의 작품 '소라가 되고 싶다' '산타가' 등을 들려준다. 그밖에 김혁순(수완중 교장)씨가 자작시를 낭송하며 회원 이규택씨가 박원자씨 시에 정덕기씨가 곡을 부친 '제비꽃 반지'를 들려준다.

6월 11일 열리는 6월 행사에는 한



국작곡가회 회장이자 '얼굴'의 작곡가로 유명한 신귀복씨를 초청할 예정이다.

광주전남우리 가곡 부르는 매월 두번째 주 금요일 함께 모여 아름다운 가곡을 함께 나누는 모임으로 회비 1만원을 내면 간단한 먹거리도 제공됩니다. http://cafe.daum.net/gjkrong. 문의 016-694-459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아버지'의 배우 박윤모

30년 연극인생 이야기로 풍다

15일 국립박물관 토요강좌 강사

연극 '아버지'의 배우 박윤모(사진)씨가 오는 15일 오후 3시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이원복)에서 열리는 '토요특설강좌' 강사로 참여한다.

30여년 연극인의 삶을 걸어온 박씨는 이번 강연에서 '연극과 인생'이라는 주제로 그의 연극인생 이야기를 들려준다.

광주지역 대표 배우인 박씨는 2007년 지방스러운 연극인상, 2008년 올해의 배우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또 광주시 연극협회장, 광주비엔날레 공연행사 프로그래머, 2002월드컵 광주 문화행사 총감독을 지냈다. 문의 062-570-7025.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극단 허방 정통연극 '줄리 아씨' 무대에

광주 동구 공연일번지 내일까지

극단 허방이 정통 연극 '줄리 아씨'를 무대에 올린다. 13~14일 오후 8시, 15일 오후 3시~6시 광주 동구 금남로 공연일번지.

스웨덴 극작가 아우구스트 스트린드베리 작품인 '줄리 아씨'는 두 남녀 사이에 벌어지는 미묘한 심리적 갈등을 다룬 연극으로 하룻밤에 일어난 에피소드를 그리고 있다.

백작 딸인 줄리는 하인 장의 방에서 함께 춤을 추는 등 어울리다가 육체적 관계를 맺게 된다. 그동안 중직하 하인이었던 장은 관계를 가진 후 갑자기 풀변해 줄리를 함부로 대하는 등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데... 극단 대표 김영학씨가 연출을 맡았으며 나윤정씨가 주인공 줄리 역으로 출연한다. 이현·박선영씨가 함께 호흡을 맞춘다. 문의 018-642-926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이창수 시인과 함께하는 '감각적 시 써보기'

일곡도서관 문화프로그램

광주북구일곡도서관(관장 황은주)이 13일부터 6개월간 이창수(40·사진) 시인을 강사로 초청 문화프로그램 '당신도 시인! 감각적 시 써보기'를 진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2010년 도서관에 문화작가 파견' 문화체육관

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지역민과 시인, 문화과의 만남 등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문화프로그램은 2개월씩 나누어 대상자별로 이루어지며 5·6월에는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일곡도서관에서, 7·8월에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책들이 어린이도서관에



서, 주부는 9·10월 문흥2동 작은도서관에서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형태로 진행 된다.

이창수 시인은 보성 출신으로 중앙대 대학원 문예창작을 졸업했으며 2000년 '시인'으로 등단, 시집 '물오리사냥' 등을 냈다. 문의 062-510-1631.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영/화/안/내

메가박스

1관	하녀 (184)	최고급편
2관	구르몽 버서난 달처럼 (154)	
3관	대한민국1% (124) / 아이언맨2 (124)	
4관	로빈 후드 (154)	
5관	하녀 (184)	
6관	시 (154)	
7관	베스트셀러 (154) / 베스트셀러 (154)	
8관	로빈 후드 (154)	
9관	아이언맨2 (124)	

• 호남주치타워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 2시간 30분 초과시 정산요금 부과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구.련현악국사거리 ♥에메 1544-0600

콜롬버스시네마

1관	로빈 후드 (154)	
2관	대한민국1% (124) / 베스트셀러 (154)	
3관	로빈 후드 (154)	
4관	로빈 후드 (154)	
5관	구르몽 버서난 달처럼 (154)	
6관	하녀 (184) / 토이스토리, 토이 (2배)	
7관	아이언맨2 (124)	
8관	시 (154)	
9관	하녀 (184)	
10관	아이언맨2 (124)	

3D디지털 상영! 4/1(목) 상무점, 아남점 동시개봉!!



<클래디에이터>의 10년 신화가 깨진다! 1588-7941 상무점월별 발명~(1번 or 2번)→0번

씨너스전대

1관	아이언맨2 (124) / 하녀 (184)	
2관	브라더스 (154) / 로빈 후드 (154)	
3관	로빈 후드 (154)	
4관	시 (154)	
5관	구르몽 버서난 달처럼 (154)	
6관	베스트셀러 (154)	
7관	아이언맨2 (124)	
8관	하녀 (184)	

씨너스전대 3D(4K) 상영!!

• 무료주차 3시간 • 이층통신사 할인혜택



색깔있는 영화상영 • www.cinuso.co.kr / 1544-0070 북구보전소 건너편 ☎ 511-1000

제일시네마

1관	로빈 후드 (154)	
2관	로빈 후드 (154)	
3관	아이언맨2 (124)	
4관	하녀 (184)	
5관	구르몽 버서난 달처럼 (154)	
6관	대한민국1% (124)	

• 무료주차 3시간 *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 (광주 서우로 51 호남타워주차장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



새로운 기록 • www.mhcinema.com www.jelcinema.co.kr • 종정로 371 ♥ARS 전화예매 ☎ 227-1960